

첨단산업 투자 막는 규제 걷어내자... 한경협, 41건 개선 건의

반도체 분야 도로·용수 등 확충 요구
배터리 미공제 세액 직접환급 제안
로봇 원본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요청
대기업까지 AI 컴퓨팅 자원 개방 촉구
미래차·고효율 설비 세액공제 확대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배터리·로봇·미래차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첨단산업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만큼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세제 지원, 인공지능(AI)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개방까지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경협은 21일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건의 과제’ 41건을 규제합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터리 4건, 로봇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건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고 21건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다. 반도체 분야는 생산시설 투자에 맞춰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

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핵심이다. 한경협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국지도 57호선 개량사업의 고시 일정을 앞당기고,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인허가 기간 단축과 국비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전력 조달 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구

글·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가 공급망에 무탄소전력 사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원전 등 무탄소전력을 기업이 직접 구매하고 인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탄소중립기본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탄소전력 직접구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터리 업계에는 대규모 선행 투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지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자 기업이 투자세액공제를 즉시 활용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미공제 세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확대와 공동 ESS 평가시설 구축도 요구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 확보가 과제로 제시됐다. 안전한 실증구역에서 원본 영상·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보유한 AI 컴퓨팅 자원의 이용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한경협은 미래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차와 에너지 고효율 설비인 공기열 히트펌프를 국내생산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하고, 국산 AI 기반모델을 탑재한 가전의 보급·공공수요 지원도 건의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 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조현준 “HVDC로 글로벌 전력망 시장 공략”

(효성그룹 회장)

2GW급 대용량 기술로 국산화 속도
한전 실증사업 밸브·제어기 분야 참여
美 빅테크 공급 등 신규수주 9.3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이 초고압 직류송전(HVDC)을 미래 전력망 사업의 핵심 기술로 삼고 국산화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발전단지와 주요 전력 수요처 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장거리·대용량 송전에 유리한 HVDC가 주목받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이러한 시장 변화를 내다보고 HVDC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해 왔다. 효성중공업은 2012년 제주 20메가와트(MW)급 전압형 HVDC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컨버터 밸브와 제어시스템 등



200MW급 주요 설비를 자체 개발해 실제 전력망에 적용했다. 현재는 이를 2기가와트(GW)급 대용량 기술로 확대하고 있다.

기술 개발 성과는 대규모 전력망 실증으로 이어졌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0일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대용량 전압형 HVDC 국산화 및 실증사업’의 밸브·제어기 분야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체 개발한 기자재의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은 세계 HVDC 송전 시장이 2025년 156억2000만달러(약 21조6000억원)에서 연평균 7.2% 성장해 2030년 220억7000만달러(약 3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효성중공업은 HVDC를 비롯해 초고압 변압기·차단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스테이션 등 전력망 설비를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2020년 인수한 테네시주 맵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현지 생산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초고압변압기 공급계약을 잇달아 체결했으며 지난 8월까지 약 9조3000억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유럽에서는 HVDC를 중심으로 차세대 전력망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력산업 학술·전시 행사 ‘시그레(CIGRE) 2026’에 참가해 독자 개발한 전압형 HVDC와 차세대 전력망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사와의 기술 협력을 확대했다.

/원관희 기자 wkh@

중진공, K-패션 16개사 日 판로 확대 지원

TGC 참가 4개사 무대 구성·영상 제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내 중소패션 브랜드의 일본 시장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중진공은 지난 19일 K-패션 해외(일본) 유통망 공동진출사업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제43회 마이니치 도쿄 걸즈 컬렉션(TGC) 2026 가을·겨울’ 참가를 지원하고, 전일부터 도쿄 오모테산도에서 팝업스토어 운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TGC는 200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대표 패션 행사로, 올해 현장 관람객 1만8000여 명과 온라인 생중계 누적 시청자 약 470만 명이 쇼를 감상했다.

TGC에는 ▲밀로아카이브 ▲히에타(hieta) ▲인사일런스 우먼(INSILENCE WOMEN) ▲넛포너드(NOT4NERD) 등 4개사가 참여했다. 중진공은 참가비를 포함해 영상 제작, 무대 구성 컨설팅 등을



지난 20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운영하고 있는 팝업스토어 ‘K-클로짓 바이 중진공 X 누구’ 현장 풍경.

지원했다.

중진공은 일본 온라인 패션 유통 플랫폼 ‘누구(NUGU)’와 함께 다음 달 1일까지 팝업스토어 ‘K-클로짓 바이 중진공 X 누구(K-CLOSET by KOSME X NUGU)’도 오픈한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물류 특화 피지컬AI 개발

CJ대한통운이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업 리얼월드와 함께 물류 산업에 최적화된 피지컬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리얼월드 본사에서 리얼월드와 물류 특화 피지컬AI 전략적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리얼월드 에 지분을 투자하며 전략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협력을 기점으로 단순 투자를 넘어 실제 물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피지컬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양사는 먼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공동 개발에 나선다. RFM은 로봇이 시각·언어·음성·센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해 판단,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AI 모델이다.

/김승호 기자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환급행사



김 승 호 역

연장클릭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과일 5만 원 어치를 샀다. 물론 휴대폰속에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했다. 평소 할인율이 7%였던 온누리상품권은 추석을 맞아 10%까지 혜택을 줘 더욱 알뜰하게 쓸 수 있었다.

마침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열렸다. 환급행사는 과일·야채 등 농축산물과 수산물 두 종류로 나뉜다.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이나 2만원을 종이로 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각각 지원한다.

그런데 지류 상품권을 돌려받는 과정이 참 지난하다. 가게에서 영수증을 받아 시장에 있는 상인회 등 지정된 사무실로 가야한다. 지자가 장을 본 서울 도봉구 도개비시장에 있는 사무실엔 벌써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쪽은 농축산물, 또다른 한쪽은 수산물 줄이다.

관계자가 “물고기 줄은 이쪽이요, 수산물은 이쪽이 서세요”라는 말로 정리하며 분주하다. 줄을 선 사람들도 우왕좌왕한다. 그렇게 10여분을 기다려 사무실로 갔더니 그 안에서도 대기가 필요하다. 마치 투표장 풍경 같다.

8명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고객들에게 영수증과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상품권을 환급해줬다.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부정환급 등의 오류를 막기위해 영수증을 한번, 휴대폰에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정보를 한번, 받아가는 상품권을 한번 총 3번의 사진을 찍는다.

지자의 경우 구입액이 3만4000원 이상에서 6만7000원 미만 사이여서 환급액은 1만원이었다.

이처럼 줄을 서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15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서야 1만원짜리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추석 같은 대목을 맞아 전통시장으로 국민들의 발길을 유도하기위해 농식품부, 해수부 같은 정부 부처가 예산을 들여 이런 행사를 펼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하나 환급 과정이 너무 예스러운 것에 마음이 씁쓸했다.

물론 디지털 접근이 취약한 분들에게는 분명 이와 같은 방식의 환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휴대폰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사람들에게겐 부정을 방지하면서도 환급 과정을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를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면서 생기는 행정적 낭비는 또 얼마나 큰가. 지자가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어렵잡아 세어본 관계자만 15명 가량은 족히 돼 보였다. 이런 풍경이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벌어졌다. 정말 가관이다.

/bada@

한국엔컴퍼니, 장애인 고용서 포용문화 확장

동그라미파트너스 성장 사례 공유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넘어 포용적 조직문화 구축 사례를 공유하며 기업 내 다양성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의 성장 사례를 통해 일자리에서 출발한 포용이 조직문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18일 경기성

남시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지식나눔회’를 열고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의 장애인 고용과 포용적 조직문화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의 소통 문화와 포용적인 일터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HR지원파트 김수현 담당자가 발표를 맡았다.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2015년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양성운 기자